2023
북촌마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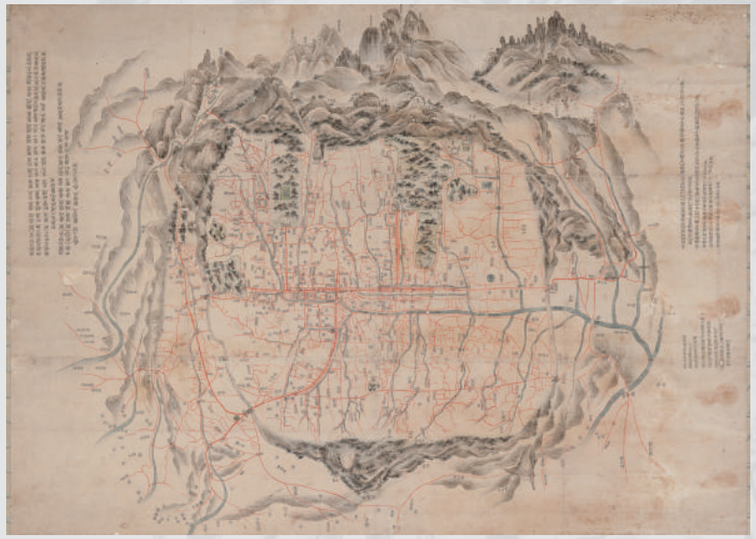


500년 北村, 역사가 중첩된 풍경

조선 왕실의 흔적에서
근대인들의 발자국까지,
마을의 자취를 담은 오늘날의
경관과 터(基)에 서려있는
비화(祕話)를 알아보는 시간

박종인
여행문화전문기자

역사가 만드는 풍경, 풍경이 만드는 역사



북촌을 흐르던 물길. 1750년대 도성도. /규장각 소장

서울 북촌 가회동을 남북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원래 개천이었다. 감사원이 있는 언덕에서 흘러내려 청계천으로 빠져나갔다. 지금은 생각도 못할 풍경이다. 옛 사람들은 그 개울 주변 낮고 평평한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게 지금 북촌 원류다. 고관대작이 살았다는 이 개울가 평지가 북촌이다. 조선 왕실에서도 왕족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왕족이 산 집들 혹은 집터에는 '궁(宮)'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지금 관광객으로 대만원을 이루는 고지대 한옥마을은 돌산이었다. 그 돌산에 구한말 권력자들이 집을 지었다. 고관대작 이름은 민대식, 민영휘, 이재완 등이다. 나라가 비참한 나락으로 빠져들 망국시대, 거대한 토지 위에 집을 지었다. 1920년대 지도를 보면 지금 한옥마을 위치에 이들 집이 띄엄띄엄 그려져 있고 그 넓은 땅 명칭은 '민대식 저(邸)' 같은 식으로 붙어 있다.

암반을 깎아 만든 삼청동 돌계단길.



헌법재판소 1: 능성위궁터와 외아문

이들이 하나둘 몰락하면서 내놓은 그 광활한 필지를 분할해 거기에 중상층 조선인이 살 만한 한옥을 지은 사람은 정세권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은 청계천 북쪽까지 틈입해오는 일본인 주택가에 도시형 한옥을 만들어 팔았다. 1930년대 만든 그 한옥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북촌을 형성했다.

자, 사람 살기 편한 저지대에는 돈 있는 권세가들이 살았고 이후 그 위쪽 돌산에는 중상층, 후에는 중류층 조선인들이 식민시대를 살아냈다. 왕실에서 명망가, 명망가에서 우리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발자국을 남긴 저 북촌에는 도대체 얼마나 복잡다기한 역사가 중첩돼 있겠는가. 동일한 장소에 여러 시간대가 누적되고 그 시간대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시대정신을 공유하며 북촌 풍경을 바꿔나갔다. 이 21세기 대한민국시대,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보자.



능성위궁 터. 헌법재판소 옆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번으로 재동 83번지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멀리 영조 때 후궁 숙의 문씨 사이에서 태어난 화길옹주(1754~1772)가 살던 집, 능성위궁이 있던 곳이다. 화길옹주는 능성 구씨 구민화에게 시집을 갔는데 영조가 이 능성위 구민화에게 준 집이다. 왕이 하사한 집이라서 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헌법재판소 남쪽에는 이 능성위궁 터가 남아 있다.



외아문 관리들. 퍼시벌 로웰 촬영.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18세기 중후반 왕족이 살았던 이 헌법재판소 자리에 19세기 말 '외아문'이라는 관청이 들어섰다. 외아문은 지금 외교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1882년 설치된 외아문 공식명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다. 바야흐로 전세계가 근대라는 초유의 시대로 접어들던 19세기 후반, 조선 또한 그 물결에 동참했다. 청나라와 맺고 있던 사대주의 외교는 예부에서 담당하고, 평등한 근대식 외교는 바로 이 외아문에서 담당했다.

위 사진은 1884년 2월 바로 이 외아문에서 퍼시벌 로웰이라는 미국인이 촬영한 사진이다. 퍼시벌 로웰은 천문학자다. 로웰은 해왕성 바깥에 또 다른 행성이 있으리라 예측했다. 로웰이 죽은 뒤 그 후배들이 찾아낸 행성이 명왕성이다. 명왕성은 21세기 들어서 행성 자격을 잃었다. 천문학자가 되기 전 로웰은 일본에서 일했다. 1883년 조선정부가 미국과 수교한 뒤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로웰은 그 수행원으로 일했다. 1884년 보빙사 일행과 귀국한 로웰은 석 달 동안 서울 곳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위 사진에는 문관 상복(常服)을 입은 당시 외아문 독판 민영목과 김홍집(민영목 오른쪽), 홍영식(김홍집 오른쪽)이 보인다. 민영목은 정치적으로 수구파였고 김홍집과 홍영식은 개화파였다. 김홍집은 2차수신사로 1882년 일본을 방문했고 홍영식은 로웰과 함께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부사였다. 이들이 1884년 봄날을 앞두고 외아문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시대는 능성위가 살았던 100년 전 조선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돌진 중이었다.

헌법재판소 2: 개화의 아버지 박규수 그리고 갑신정변



헌법재판소 백송. 개화파 박규수가 살던 집이다.

헌법재판소 부지 북쪽에는 백송이 있다. 중국에서 들여온 외래종이다. 수피가 하얗고 아름답다. 이 백송이 있었던 집에는 박규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평양 대동강에 무단 침입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화공으로 내쫓은 평안도 관찰사로 소개돼 있다. 그런데 박규수는 개화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박규수는 청나라에서 근대 문물을 목격하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개화밖에 없다고 믿었다. 백송이 있는 박규수 사랑방에서 북촌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박규수 지도를 받았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같은 젊은이가 그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그 사랑방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박규수가 지구본을 돌리더니 김옥균을 돌아보며 웃어 가로되 "오늘의 중국이 어디 있느냐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며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이 되니 오늘에 어디 정한 중국이 있느냐?" 하니 김옥균이 크게 깨닫고 무릎을 치고 일어섰더라. 이 끝에 갑신정변이 폭발되었더라.' 북촌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정의롭다고 생각한 권력자들 마을이었다. 박규수도, 박규수를 따르는 청년들도 노론(老論) 가문이었다. 그런데 근대 문물을 접한 박규수는 조선의 미래는 근대정신의 수용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청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과 서재필. 이들 북촌 5인방이 그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긴 사건이 1884년 겨울 갑신정변이다.



홍영식 가족. 가운데 아버지 전 영의정 홍순목, 바로 오른쪽 옆이 홍영식이다. /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박규수 집터에서 북쪽으로 홍영식이 살았다. 앞에서 본 외아문 사진에 나온 그 홍영식이다. 1884년 2월 외아문 사진을 찍을 무렵 퍼시벌 로웰은 인근에 있는 홍영식 집에 가서 그 가족 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아버지 홍순목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홍영식이 보인다. 홍영식은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뒤 우체국을 만들고 본인이 우정총국 책임자로 취임했다. 스승 박규수와 이웃하며 살던 홍영식은 미국 경험이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다. 홍영식은 방미 일정을 수행한 또 다른 미국인 조지 포크에게 "어지러울 정도로 눈부신 빛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다.[1)]

앞쪽 외아문 사진에는 외아문 독판 민영목과 홍영식이 나란히 앉은 장면이 찍혀 있다. 이미 그때부터 홍영식은 정변을 꿈꾸고 있었으니 저 사진에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을 담겨 있겠는가. 1884년 11월 19일 홍영식은 주조선미국공사 푸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빛을 가리는 물건은 깨뜨려서 사방을 밝혀야 한다."[2)] 그리고 12월 4일 미국에서 감염된 어지럼증을 깨뜨리고 빛을 조선에 던지기 위해 홍영식을 비롯한 북촌 청년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지금 조계사 옆에 있는 우정총국 개국파티에서 북촌 청년들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사진 속 홍영식 옆에 앉아 있는 독판 민영목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홍영식과 함께 보빙사 정사로 미국에 갔던 왕비 민씨 조카 민영익은 치명상을 입었다.

1) 1884년 12월 17일 '푸트 공사가 프렐링휘센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포크 소위의 편지', 미 국무성 Office of The Historian 자료
2) 1884년 11월 19일 '윤치호일기'



헌법재판소. 종로구 재동 83.

정변은 3일천하, 정확하게는 46시간 만에 실패했다. 앞 홍영식 가족사진에 나온 아버지 홍순목은 다른 식구들과 함께 자살했다. 김옥균과 박영효와 서광범과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홍영식은 고종을 수행해 혜화동 북묘까지 갔다가 관군에 피살됐다.

우정총국 파티에서 다친 민영익은 호러스 알렌이라는 의사 겸 미국 선교사가 살려냈다. 고종은 알렌에게 병원 개원을 약속했다. 그 병원이 처음 설립된 곳이 홍영식이 살던 집이다. 알렌은 피투성이가 된 홍영식 집을 개조해 병원을 만들었다. 이름은 제중원이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곳이 재동 헌법재판소 자리다. 모두 사라지고, 모두 역사가 되고, 식민시대에 이 자리는 여학교가 되었다. 경기여고가 이 자리에 설립됐다. 해방 후 경기여고는 정동으로 이사하고 창덕여고가 또 들어왔다. 지금은 헌법재판소라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기관이 자리를 지킨다.

근대의 두 얼굴, 정독도서관 1: 김옥균과 서재필



정독도서관 잔디밭 남쪽에 서 있는 김옥균 집터 표석.

화동2번지 정독도서관에는 눈여겨볼 만한 표석과 역사적 흔적이 숱하다. 지금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책을 접하려는 시민으로 붐비는데, 100년 전까지 이 도서관 터에는 숨 막히는 역사적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한 여자가 정부에 탄원서를 올린다. '저는 예전에 한성 북부 홍현(紅峴)에 거주하다가 갑신년(1884)에 국사범으로 바다 바깥 귀신이 된 전 참판 김옥균의 처이온데, 온가족은 어육(魚肉)의 화를 당하고 재산은 몽땅 적몰당하는 변을 만났나이다.' 1909년 1월 29일 갑신정변 주역 김옥균 아내 유씨가 당시 대한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청원서를 올린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제 망부가 죄를 탕척 받고 관작을 회복했으나 살 곳이 전무하오니 북부 홍현에 있는 관립고등학교가 제 집터이온즉 미망인 심정을 헤아리시어 처분하기를 천만절축하나이다.'[3]

3) 각사등록 근대편, 청원서2, '김옥균 처의 청원서', 1909년 1월 29일



김옥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4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주모자들은 망명하고, 망명하지 못한 자들은 거리에서 죽었다. 가족은 연좌해 처형되거나 자살했다. 그리고 재산은 파가저택(破家瀦澤), 집을 부수고 못을 만들어 흔적을 없애버렸다. 1894년 3월 28일 고종 정권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 의해 청나라 상해에서 암살된 김옥균은 4월 14일 한성 양화진에서 '조선왕조 최후의' 사후 능지처참이자 부관참시를 당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조선에 갑오개혁정부가 들어섰다. 고종은 김옥균의 관작 회복 칙령을 내렸다.[4] 김옥균 아내 유씨는 바로 이 칙령에 근거해 나라가 가져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대한제국 총리대신에게 청원서를 올린 것이다. 그녀가 적시한 옛 집터가 홍현(紅峴)이었고, 1909년 당시 이 '붉은 고개'에 관립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었다. 그 관립고등학교가 훗날 경기고등학교다. 경기고가 서울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학교 터는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서재필은 김옥균 옆집에 살았다. 그런데 서재필 흔적은 도서관 구내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재혼 후 낳은 딸 뮤리엘 제이슨은 1950년대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956년 4월 12일 대법원은 경기고 부지 가운데 3443평을 서재필 소유로 반환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경기 90년사'(경기고등학교 동창회, 1990)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환이나) 대금 지불을 미뤘고' 결국 경기고는 1972년 강남 이전을 결정했다.[5] 후배 서재필과 선배 김옥균은 그렇게 북촌 좁은 골짜기에 어깨를 부딪치며 살면서 근대화와 대(對) 중국 독립 명분을 쌓았다. 그러니 정독도서관 잔디밭에 서재필 표석 또한 있어야 김옥균 표석이 완성된다.

4) 1894년 음12월 27일 '고종실록'
5)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1990, p55

근대의 두 얼굴, 정독도서관 2: 관립학교 설립과 박제순



'한일병합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은 박제순

1899년 대한제국 정부는 정덕(正德), 이용(移用), 후생(厚生)을 갖춘 실업인 양성을 목표로 관립 '중학교 관제' 칙령을 발표했다.[6] 이듬해 10월 현 정독도서관 자리에 관립중학교가 개교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나라가 사라졌다. 관립 한성고등학교로 운영되던 학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 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경성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초대교장은 홋카이도 교육자 오카모토 스케(岡元輔)였다. 경성고보 학생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학교 부지는 이에 비례해 좁아졌다. 그 학교 부지 북쪽에 박제순이 살았다. 맞다. 을사조약 때 나라 파는 데 동의했던 을사오적 박제순이다. 그 대가로 박제순은 조선 귀족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16년 박제순이 죽었다. 경성 용산역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1000여 인파가 몰렸다. 자작 작위는 아들 박부양이 계승했다. 손자 박승유는 이에 반발해 일본군에 자원했다가 탈출해 광복군 활동을 하며 해방을 맞았다.[7] 2년이 지난 1918년 2월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학교를 방문했다. 비좁은 경성고보 부지 문제로 오카모토 교장은 고민이 보통이 아니었다. 박제순 집터만 수용하면 숨통이 트일 터였다. 지금으로 치면 정독도서관 잔디밭 가운데에서 본관 뒤편 언덕 너머까지가 박제순 집터였다. 그런데 박제순 집안은 '한일병합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은 귀족 집안이 아닌가. 그래서 교장 오카모토도 그 생전에는 "학교가 좁아서…토지를…좀…" 따위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하세가와가 학교를 찾았을 때 집은 폐허였다. 그때 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사부로(關屋貞三郎)가 "저 집터를 쓰면 된다"고 총독에게 제안했다.

6) 1899년 4월 4일 '고종실록'
7)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박승유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정독도서관에 있는 박제순 우물.

그리 되었다. 박제순 집안은 어렵지 않게 총독부에 땅을 팔았다. 이후 학생들이 고지대를 깎아 저지대를 메우는 작업을 했고, 1919년 현재 규모 부지가 완성됐다.[8] 본관건물 뒤편, 정독독서실 건물 앞 철책 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있다. 돌에는 한자 24글자가 새겨져 있다. 뜻은 이렇다. '둥근 우물돌이다. 아마 고려 때 것 같은데 샘은 매립돼 흔적이 없고 돌만 우뚝하다. 광무4년(1900년) 겨울 평재(平齋)가 적다' 이 글을 적은 사람 '평재'가 1905년 대한제국 외부대신 자격으로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평재 박제순이다. 우물돌이 남아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박제순이 살던 집터다. 규모는 지금 도서관 전체 부지 면적 1만1000여 평 절반인 5672평이었다. 1990년에 발간한 '경기90년사'에는 이 돌을 1970년에 발견했고 정체는 박제순 집 우물돌이라고 기록돼 있다. 맑은 가을날 정독도서관에 가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가을비 궂게 내리는 날 정독도서관에 가보시라. 평화롭고 푸른 저 배움의 공간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가. 그 흔적들 모두가 역사다.

8) 이상 '경기90년사', p120

현대건설 사옥 1: 경우궁터와 수빈 박씨와 세도정치



계동 현대건설 사옥 앞 관상감 관천대. 세종시대 흔적이다.

정독도서관에서 나와 재동초등학교 옆길로 한참 가면 계동이 나온다. 계동에서 가장 큰 빌딩은 현대건설 사옥이다. 원래 이 자리에는 휘문고등학교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민영휘라는 구한말~식민시대 권력자 겸 갑부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다. 1904년 민영휘가 만든 광성의숙이 1906년 8월 고종에 의해 휘문의숙으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 개편됐다.[9] 이 휘문고 자리는 헌법재판소만큼이나 사연이 길고 깊다.

아득한 조선 전기, 천문학과 과학기술에 도가 텄던 천재 지도자 세종은 여러 천문관측기구를 만들었다. 이들을 모아놓은 관측대가 관천대다. 경복궁 안에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기상관측 기관인 서운관에 두었다. 정확한 설치 날짜는 기록에 없다. 서운관이 있던 자리가 바로 현대건설 부지다. 빌딩 정면 오른쪽에 '관상감 관천대'라고 이름 붙은 유적이 있다. '관상감'은 서운관의 다른 이름이다. 별을 보려면 지대가 높아야 한다. 서운관이 있는 자리는 언덕이다. '서운관(書雲觀)'이 있다고 해서 언덕 이름이 운현(雲峴)이다.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운현궁은 이 고개 이름에서 따왔다.

15세기 기상관측소가 있던 그 땅에 '경우궁(景祐宮)'이라는 사당이 들어섰다. 수빈 박씨라는 여자를 모신 사당이다. 조선 23대 국왕 순조를 낳은 사람이 수빈 박씨다. 아버지는 정조다. 1790년 정조가 서른여덟 살에 마침내 왕자를 보았다. 사랑했던 의빈 성씨가 낳은 아들은 여섯 살에 죽었고 다시 맞이한 후궁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순조다. 1822년 음력 12월 26일 '가순궁'이라는 궁호를 받은 어머니 박씨가 죽었다. 박씨는 죽음을 앞두고 모아뒀던 은화 1만6000냥을 아들 순조에게 주었다.[10] 순조는 이 돈으로 창경궁 안에 사당을 짓고 이름을 현사궁(顯思宮)이라고 지었다. 양주 배봉산에 묘를 썼는데, 묘소 이름은 휘경원이다. 지금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지명이 여기에서 나왔다.

9) 1906년 7월 30일 '황성신문'
10) 1823년 1월 27일 '순조실록'

1824년 바로 여기 계동에 사당을 짓고 위패를 옮겨왔다. 후궁인지라 정비(正妃)만 모시는 종묘에는 들지 못했다. 사당 이름은 경우궁이라고 고쳤다. 담장 길이가 280칸인 제법 큰 사당이었다. 경우궁은 지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청와대 옆 칠궁(七宮)에 옮겨가 있다.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했다. 이 해가 바로 순조부터 철종까지 소위 소년왕들을 등에 업고 외척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세도(勢道) 정치가 시작된 해다.



경우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장



현대사옥 앞 경우궁 터 표지.



계동궁터 표석.

현대건설 사옥 2: 불꽃, 갑신정변

그리고 딱 60년 뒤, 엇갈린 시간대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정독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함께 썼던 청년들이 경우궁에 나타났다. 박규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깨우친 갑신정변 주인공들이다. 1884년 12월 4일 밤, 조계사 앞 우정총국에서 칼을 꺼낸 이들은 창덕궁에서 고종 부부를 수행해 경우궁으로 들어갔다. 창덕궁보다 경우궁이 훨씬 좁았기에 진압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았다. 그런데 왕비 민씨가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고종 부부는 창덕궁으로 복귀를 명했다. 복귀한 정변파는 곧 민씨 일족이 부른 청나라 군사 공격을 받고 퇴각한다. 창덕궁 무기고에 있던 무기들이 모조리 녹이 슨 상태였던 데다 뒤를 받쳐주겠다고 약속한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발을 빼버린 탓이다. 경우궁을 떠났던 일행은 곧바로 창덕궁으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고종 사촌형 이재원 집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정변파는 갑신정변 정강 14개조를 발표했다.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왕이 머문 집이라 해서 집은 계동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계동궁 또한 현대건설 부지에 표석이 있다. 근처에서 가장 높았던 언덕 운현, 세종이 남긴 흔적, 격변의 시대를 겪은 경우궁과 계동궁, 북촌 젊은이들의 결기와 대한민국 경제성장 주역인 현대건설 자체가 모두 이 계동 대로변에 공존하고 있다. 그 현대건설 주변에는 해방 직후 활동했던 좌익 지도자 여운형 집터와 그가 만든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실 자리와 그가 행했던 연설 장소도 있다. 집터는 현대건설 북동쪽 안동손칼국수 건물 자리에, 건준 사무실은 현대건설 서쪽 보헌빌딩 자리에 있었다.

안동손칼국수(여운형 집터).



보헌빌딩(옛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실 터).



인현왕후와 왕비 민씨, 감고당



덕성여고 앞 감고당 터 표석.



여주시로 이전 복원된 감고당.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소장

누군가는 그녀를 민비라 부른다. 누군가는 민비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명성황후라고 고쳐준다. 민비 혹은 명성황후. 그만큼 그녀는 문제적이다. 일본인 손에 암살되며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외쳤다는 당당한 여걸. 혹은 여흥 민씨 일족을 위해 나라를 이용한 부도덕한 지도자. 그 사이 어디쯤에 그녀는 있다. 그때 살았던 대부분 여자들처럼,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흔히 이름을 민자영이라고들 하지만 이는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 일기'에 나오는 창작명이다. 경기도 여주에 살던 그녀가 서울로 왔다. 무남독녀 외동딸이다. 그리고 그녀가 왕비가 되었다. 시댁 할머니도 여흥 민씨, 시어머니도 여흥 민씨, 아들 첫 며느리도 여흥 민씨였으니 이 여흥 민씨 권세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상경한 그녀가 살던 곳이 감고당이다. 덕성여고 앞에 표석이 서 있다. 감고당은 역시 여흥 민씨인 숙종 계비 인현왕후가 살던 집이다. 감고당 이름은 영조가 지었다. 장희빈에게 사랑을 빼앗긴 인현왕후는 자기 아버지 민유중 집인 이 감고당에 얹혀 살다가 극적으로 환궁했다. 여주에서 올라온 민비는 이 집에서 8년을 살다가 1866년 대원군 이하응 슬하 명복에게 시집을 갔다. 이후 이야기는 숱하게 많으니 생략하도록 하자. 감고당은 훗날 그녀 고향인 여주로 옮겨가고 북촌에는 표석만 남아 있다. 생각해보라. 이 감고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격동의 근대사가 시작된 출발지다. 조선왕실과 가까운 촌수가 아니었던 고종, 그리고 명문 집안이되 당시 권력과 거리가 멀었던 여흥 민씨 여자가 만났다. 그것도 당대 최고 권력자 부부로 인연을 맺고서 소설에나 나올 법한 격동 세월을 살았다. 그 사이에 세상은 근대가 되었고 조선은 그 근대를 맞는 데 서툴렀고 서툰 대응 속에 이웃 일본에 국권을 넘겨줘버리는 신세를 맞았다. 그 격동 한가운데가 바로 이 북촌이다. 그때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도 북촌에서 나왔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려던 젊은 지도자들도 북촌에서 나왔다. 감고당은 여주로 이건됐지만 격동의 현장은 북촌에 남아 있다.

감고당의 옛 모습. /사진으로 보는 서울 소장



조선어학회 터와 정세권



1949년 6월 12일 '십일회' 기념사진. 십일회는 1942년 10월 1일 벌어진 조선어학회 사건 소장 수난자 모임이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세권이다. /한글학회 소장



가농 정세권

감고당이 있는 골목 북쪽 끝에 조선어학회 터가 있다. 식민시대 조선어 학자들이 한글을 보듬던 장소다. 주소는 화동 128-2다. 표석이 서 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한 일들이야 우리 모두 잘 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문법과 자모음을 현대적으로 세련화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임에도 푸대접은커녕 아예 무시당했던 문자가 이들에 의해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연이 있다. 사연 주인공은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개발업자 정세권이다. 정세권은 바로 이 조선어학회 건물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정세권은 조선어학회에 이곳에 있는 2층양옥을 사무실로 쓰도록 양도했다.[11]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다. 학자들이 대거 구속되자 정세권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감형을 조건으로 서울 뚝섬 일대에 있던 부동산을 내놨다. 건축업 허가증도 강제 반납했다. 해방이 되고 4년 뒤 그때 풀려난 학자들과 찍은 기념사진이 앞 사진이다. 북촌 한옥마을을 설계하고 도시형 한옥마을을 만든 부자가 그 번 돈을 이렇게 알뜰하고 명분 있게 쓰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 정세권은 1965년 죽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11) 1935년 7월 13일 '조선일보'



조선어학회 터.



명문당 옛 모습.
골목 맞은편 윤보선 집을 감시하기 위해 경찰이 상주했던 옥탑 모습이 희한하다.

조선어학회 표석과 감고당 사이에 윤보선 가옥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던 윤보선이 살던 집이다. 그 맞은편에 2023년 10월로 100년을 맞은 출판사 '명문당' 건물이 있다. 식민시대인 1923년 설립된 출판사다. 고서(古書)를 주로 출판하는 고집스러운 출판사다. 그런데 이 건물 생김이 묘하다. 옥탑이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붙어 있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듯한 요새처럼 생겼다. 명문당에 따르면 이 옥탑들은 야당 지도자였던 윤보선을 감시하기 위해 여당 정부에서 파견한 경찰들이 상주하던 사무실이었다. 경찰끼리 연결된 경비전화가 실내에 설치돼 있고 경찰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던 공간이다. 출판사는 몇 년 전 외벽을 깨끗하게 손봤다. 위의 사진은 보기 좋게 만들기 전 정치적으로 아픈 추억이 그대로 남았던 옛 모습이다.

우리 여행의 끝, 안동별궁



옛 안동별궁, 지금은 서울공예박물관.



20세기 초 안동별궁.

어디에서 출발해 어느 경로로 여행을 하든, 북촌 여행은 안동별궁에서 끝난다. 안동별궁 터는 조선 초에서 식민시대와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모든 역사가 농축돼 있는 곳이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죽었다. 각종 성인병을 동반한 채 과로로 몸을 혹사시킨 왕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주소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4, 지번으로는 안국동 175번지 막내아들 영응대군 이염 집 동별궁(東別宮)에서 죽었다. 죽기 한 달 전인 1450년 2월 4일 세종은 막내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죽음을 예견한 그가 이 집으로 옮긴 이유가 있다. 세종은 나이 서른일곱에 생긴 막내아들 염(琰)을 끔찍이 사랑했다. 궁중예법에 따라 다른 아들들은 아비인 왕을 '진상(進上)'이라 불렀으나 염만은 무릎에 앉히며 "15세까지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다.[12] 염이 열 살 되던 1444년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규수들을 면접하고 여산 송씨 여식을 며느리로 간택했다. 아들이 처가에 사는 동안 세종은 영응대군 거처를 준비했다. 2년이 지난 1446년 안국동에 집을 짓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집터를 골랐다. 실록에 따르면 '그때 건축하는 비용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13] 3년 뒤 집현전에서 "대군의 저택이 너무 화려하다"고 하자 세종은 "다른 아들들 집과 다를 바 없는데 무슨!"하며 화를 낼 정도였다. 공사는 강행됐고, 영응대군은 부동산 거부가 되었다. 세종이 죽고 왕에 즉위한 맏형 문종은 궁중 금고 내탕고에 있던 보물을 모두 막내에게 주었다. 왕실에 대대로 내려오던 보화가 모두 염에게로 돌아갔다.[14] 이 영응대군 염에 대한 이야기는 훗날로 미루자. 단종을 내려앉힌 수양대군의 계유정난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여기 기록하기에는 긴 사연이다.

12) '영응대군 신도비'
13) 1446년 3월 7일 '세종실록'
14) 이상 1449년 7월 27일 '세종실록', 1467년 2월 2일 '세조실록'

이후 집 주인이 여럿 바뀌었다. 성종 형인 월산대군이 살았고 중종 딸 혜순옹주가 살았고 선조 딸 정명공주가 살았다. 그리고 1882년 2월 고종 왕비 민씨 아들 순종과 그 며느리 여흥 민씨가 바로 이 별궁에서 혼례식을 치렀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아버지 고종은 일찌감치 왕실에 걸맞은 별궁을 지으라 명했고 수소문 끝에 정명공주가 살던 이 집이 낙점됐다. 1882년 2월 22일 조선왕조 최고 호화 결혼식이 벌어졌다. 궁중 물자 목록인 '궁중발기'에 따르면, '혼수용 이불만 560채에 이르러' 이틀에 3채 씩 덮어도 한 해 다 덮지 못할 정도로 유례없이 화려한 혼례식이었다. 왕조 500년 내내 안동별궁은 왕족의 땅이었고 백성과 철저하게 유리된 공간이었다.

19세기로 돌아와, 별궁 북쪽에는 서광범이 살았다. 더 북쪽에는 김옥균과 서재필이 살았다. 동쪽에는 홍영식이 살았다. 홍영식 옆집에는 개화파 태두 박규수가 살았다. 이들이 일으킨 개화 혁명이 갑신정변이었다. 1884년 12월 4일 이들은 안동별궁 방화를 신호로 거사를 준비했다. 방화는 실패했고 대신 옆집 초가가 불탔다. 1930년대 별궁은 민영휘 가문 휘문의숙 영신재단에 매각됐다. 1945년 민영휘 후손은 그 터에 풍문여고를 개교했다. 사라진 옛 별궁 건물 일부는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대학으로 이건됐다. 그 공간에 옛 천민(賤民)을 기리는 박물관이 들어섰다. 박물관 이름은 '서울공예박물관'이다. 종이를 만들고 붓과 벼루와 먹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옷을 짓고 보자기를 만들고 돌을 깎고 쇠를 녹여 비녀와 노리개를 만들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던, 그럼에도 500년 동안 천대받던 장인(匠人)들 작품과 그 이름이 당당하게 별궁 터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여기까지가 휙 둘러본 북촌, 그 중첩된 역사가 이룩해놓은 풍경이다.

추천 답사 코스

1. **북촌문화센터 - 현대건설**(경우궁터, 계동궁터, 관천대) - **헌법재판소**(능성위궁터, 외아문, 박규수 집터, 홍영식 집터) - **정독도서관**(김옥균 집터, 서재필 집터, 박제순 우물) - **조선어학회 터 - 명문당 - 감고당 터 - 공예박물관**(안동별궁)
2. **어느 경로를 택하든 맨 마지막은 공예박물관으로 하면 좋다.**

2023북촌마을여행

500년 역사가 중첩된 풍경, 北村

박종인 · 북촌문화센터

발행일

2023년 11월

운영조직

사단법인 문화다움
www.daumian.org

문화다움 북촌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북촌문화센터
02)741-1033

소관부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한옥포털 hanok.seoul.go.kr

본 자료는 서울시와 문화다움이 협약한
'서울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